

錄 取 錄



진속기사무소

JIN STENOGRAPH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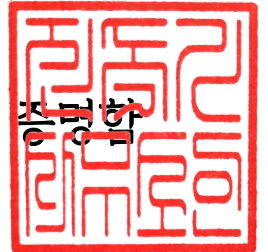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811호 (문정동, 문정헤리움써밋타워)
TEL : 02) 407-8110 / E-mail : jinsokki@naver.com / WEB : www.진속기.com

錄 取 錄

녹 음 파 일	대화 녹음 250803
녹 음 일 자	2025년 08월 03일
녹 음 장 소	경기도 구리시 금강로 2-1, 천성교회 2층 청년관
대 화 자	김여진, 이종석, 표한결, 김시은, 최우태
녹 취 서 량	표지 外 26매
작 성 일 자	2025년 08월 08일

- 본문에 기재된 녹음일시, 장소, 대화자, 목소리 구분은 의뢰인의 의뢰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은 녹음상태의 미비 등으로 인한 청취불능을 뜻함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 사투리,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에 의함
- 녹음상태의 불청(不聽)·부지(不知)로 인한 명사(名詞) 또는 고유명사(固有名詞) 등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 있음
- 속기사의 승인 없이 수정된 녹취록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본 녹취록은 의뢰받은 녹음내용과 상위(相違) 없음을 증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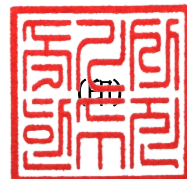


진 속기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594-21-01585)

국가공인속기사 한 수 진

(자격번호 16-G1-RT1391)



대 화 내 용

●1. 파일명 : 대화 녹음 250803

김여진 : 어찌 됐든 오늘 얘기하려고 부른 거는 해결되지 않은 얘기들이 있거든?

이종석 : 예.

김여진 : 너도 인지하다시피 너의 도촬 의혹에 대한 목격자가 있고,

이종석 : 네.

김여진 : 또 내가 그 외에도 알게 된 일들이 있어. 근데 너가 나에게 처음 도촬에 대해서 너랑 나랑 통화를 했을 때,

이종석 : 네.

김여진 : 도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너가 “카메라가 오해받을 위치였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잖아. “치마 속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였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

이종석 : 네.

김여진 : 또 어제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너에게 확인을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나는 너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

이종석 : 네.

김여진 : 내가 너에게 말할 기회를 줄 때 얘기를 할래?
너 입 다물고 있는다고 해결될 일 아닌 거 알지?

이종석 : 네.

김여진 :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니가 나를 비롯하여 교회 여청년들에게

사과를 하기 전에 너의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지 니가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너 스스로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너만 아는 니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알 수 있게 하려면 더 이상 니가 숨기는 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나는 '너가 사과할 의지가 없다. 그냥 지금도 면피하기 위해서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거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 너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나에게 말하지 않는데 니가 무작정 미안하다고만 해서 내가 그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종석 : 네.

김여진 : 처음에 말했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니가 숨김없이 말해.

이종석 : 잠시만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해도 될까요?

표한결 : 응, 그래.

이종석 : 어떤 식으로 이야기들을 해야 할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까요?

김여진 : 명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종석 : 2024년 5월부터 여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왔습니다.

김시은 : 그게 구체적으로 뭐야?

김여진 : 다시 한번 말할게.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청년 모두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니?

이종석 : 네.

표한결 :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더 편하게 앉는 게 더 너가 말을 빨리할 것 같아서 제발 그냥 편하게 지금 앉아 줘. 편하게 앉고 편하게 앉는 대신 좀 말을 빨리해 주세요.

이종석 :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그런 욕망이 있다는,
표한결 :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건 **
이종석 : 사실을 깨달았고,
표한결 : 2024년 5월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알려줘.
이종석 : 2024년에 초반에 제가 교회를 떠났을 때 저는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 시
기는 모두에게도 힘든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진 : 뭐라는 거야? 2024년 언제 교회를 어떻게 떠났는데? 천성교회 말하는 거니?
이종석 : 2024년 2월에 근호 형이랑 싸웠을 때였습니다. 근호 형이랑 싸웠을 때 교회를 떠
나 있으면서 괴롭다고 느끼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저의 집착은 심해지기
시작했고,
김시은 : 너 집착이 뭐야, 근데?
이종석 : 저의 집착은 남들이, 남들에게 공개되기 싫은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다는 집착이었
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그 무렵에 한 카메라 어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여진 : 카메라 어플?
이종석 : 네.
김여진 : 뭐 몰카 앱 같은 거? 화면 까맣게 나오는데 사진 찍히는 그런 거?
이종석 : 네, 그렇습니다.
김여진 : 그래서?
이종석 : 그렇게 도촬을 시작하게 되었고,
김여진 : 사진만 찍은 거야, 영상도 포함이야?
이종석 : 전 사진이 없었습니다. 다 모든 것은 영상이었습니다.
김여진 :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있는 여청년들이야, 아니면 나나 예진이나 사적으로 만날 때
도 다 포함이야?

이종석 : 아마도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여진 : 아니, 아마도 이렇게,

이종석 :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여진 : 손님으로 온 사람들 포함, 아니면 계속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애 특정 대상인들 몇 명이야?

이종석 : 손님 포함입니다.

김여진 : 거의 매일 상시 돌리고 있었다는 거네?

이종석 : 맞습니다.

김여진 : 그럼 찍을 때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거, 모여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찍혔겠네?

이종석 : 맞습니다.

김여진 : 그럼 형부가 본 거, 뭐 치마 속에 다 카메라 들이민 거는?

이종석 : 그것도 맞습니다.

김여진 : 그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있거든?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것도 다 치마 속이나 중요 부위, 특정 신체 부위를 찍었겠네?

이종석 : 맞습니다.

김여진 : 혹시 작년에 서머 갔을 때,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때 우리가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너랑 민서랑 준영이랑 같은 방 썼을 때 혹시 민서도 찍었니? 민서 자는 모습이나 이런 거? 신체나?

이종석 : 아닙니다.

김여진 : 그럼 그때는 민서한테는 왜 있었던 거야?

이종석 : 네?

김시은 : 기억 안 나?

이종석 : 아니, 잠시만... 민서, 네?

김여진 : 아니,

표한결 : 아, 그때 내가 생각나는 거 설명하면 그때 민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왔어.

이종석 : 네.

표한결 : 그랬더니 민서가 밤에 너가 민서 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민서 방에 있는 빵을 먹어도 되는지.

이종석 : 네.

표한결 : 그래서 민서가 먹으라 했고 민서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대.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너가 옆에 있었대. 그래서 종석이 오빠 나가달라고 했다고 했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있었어.

김여진 :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이종석 : 저는 근데 그날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 저는 그날에 민서 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시다.

김여진 : 그러면 나 포함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 노는 거나 있는 모습 촬영한 거 말고 치마 속이든 뭐 가슴이든 어떻게든 뭐 신체 특정 부위들 그런 것들을 찍은 대상은 누구, 누구 있어?

이종석 : 모두였습시다.

김여진 : 모두라는 거는 교회 지금 단톡에 있는 애들은 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자애들?

이종석 : 네, 그렇습시다.

김여진 : 찍은 게 신체 부위가 어디야?

이종석 : 전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여진 : 전신을 그냥 전신이 나오게야, 아니면 나처럼 치마 속만 이렇게 따로 촬영한 거야?

이종석 : 전부입니다.

김여진 : 다 포함해서?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거를 인터넷에 공유하거나 혹은 너가 아는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이종석 :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여진 : 그럼 너 혼자 그냥 자위할 때 사용한 거야?

이종석 : 네, 그렇습니다.

김여진 : 그 모든 사진을?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럼 영상이랑 캡처본 다 갖고 있겠네?

이종석 : 지웠습니다.

김여진 : 아니, 갖고 있었냐고, 지금 지우기 전에. 영상만, 영상 촬영을 상시 가동했다고 했잖아.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럼 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한 거야, 아니면 영상을 따로 캡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야?

이종석 : 영상을 봤고 영상을 캡처했던 적도 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김시은 :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김여진 : 아니, 너 말마따나 어찌 됐든 너가 사진 저장, SNS 강박은 뭐 13년 전부터 있었고 지금 2024년 5월부터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매주 여

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건데,

이종석 : 네.

김여진 : 양이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럼 너가 다른 데다 저장을 했을 거 아니야. 분류를 하고 컴퓨터든 하드디스크든 다 저장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지웠다고?

이종석 : 핸드폰에 지웠다, 저도 끊고 싶어서 지웠다는 반복했습니다.

표한결 : 그러면,

이종석 : 지웠다는 반복하, 말씀하신 대로 용량 때문에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것이 느껴져서 ‘이참에 끊어보자.’ 하면서 계속 지우기를 시도를 했고 지웠고, 그렇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유혹은 제 의지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 번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 번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의사 선생님은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고. 그때라도 얘기를 솔직하게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진 : 병원에 간 건 언제데?

이종석 : 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김시은 : 아니, 그거 이야기한 게 언제데?

이종석 : 상담은 병원에,

표한결 : 언제부터 상담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종석 : 병원에 처음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한 것은 24년 7월이었고 24년 7월에... 24년 7월에... 잠시만요. 24년 7월에 처음으로 제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니, 범죄가, 아니, 아니, 범죄가 아니라 범죄로 여겨질 소지가 분명히 있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때는, 그때는 아직 치마 속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합리화하면서 표현을 했고. 그때 그러고, 합리화하려고 표현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 잠시만요. 24년 7월. 24년 8월에 한 번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의지로 끊을 수 있을 줄 알고 놔뒀더니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에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25년 2월 무렵에 ‘진짜 이걸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질타를 받고 나서 결국 얘기를 못 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끊기 힘들 거라는 잘못된 판단에서였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결국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여진 : 혹시 너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 여자애들도 촬영했어?

이종석 : 음... 일단 그 어플로는 한 적이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메라로 공지를 찍어야 할 때 같이 나오게 찍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도를 바꾸거나 뭔가를 확대하거나 그런 선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변경을 가하진 않았지만 양심적으로 그런 일이 두세 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표한결 : 그러면 궁금한 게 2024년 5월에 이제 그 도촬이라고 하는 일이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야? 아니면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시작이 된 거야?

이종석 :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표한결 : 그러면 2025년 2월에 더 심해졌다고 했잖아.

이종석 : 네.

표한결 : 2월부터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거야, 2024년 5월부터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거야?

앉아서 해.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앉아, 앉아. 진짜 앉아도 돼, 지금.

이종석 : 네, 네. 잠시만요. 20... 질문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표한결 : 그러니까 25, 다리 잠깐 일어나도 돼. 다리 펴도 돼. 다리를 앞으로 펴.

이종석 : 네.

표한결 : 24년 5월에 교회에서 이제 일상 포함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25년 2월에 심해져서 촬영을 더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게 심해졌다 했잖아.

이종석 : 생각해 보니 24년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5년 2월이,

표한결 : 아, 24년 12월에 그때부터 그럼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거야?

이종석 : 네.

김시은 : 종석아 근데 너 핸드폰 두 개야?

이종석 : 아니요.

김시은 : 그러면 사진을 너가 많이 찍잖아.

이종석 : 네.

표한결 : 아까 말했어. 지웠다가 끊었다,

김시은 :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청년 활동할 때마다 사진을 부탁했잖아.

이종석 : 네.

김시은 : 그러면 영상 찍을 수 있는 어플은 두 개가 동시에 시행시킬 수 있는 거야?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은 너가 상시 가동을 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로잖아. 상시 가동을 했던 거였잖아.

이종석 : 네.

김여진 : 근데 우리가 뭐 청년부 활동하는 사진 담장에 너였잖아.

이종석 : 네.

김여진 : 우리 단체 사진 찍거나 활동사진 찍을 때는 그럼 그때는 잠깐 어플을 중단하고 찍은 건지, 다른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걸로 찍은 건지.

이종석 : 아, 중단하고 찍은 겁니다.

김여진 : 중단하고 찍은 거야?

이종석 : 네.

표한결 : 그런 거는 지금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너가 지금 24년 5월에 교회에서 촬영

을 시작했고 7월에 상담을 병원에 받으러 갔고 끊었다 지웠다를 반복했고 12월부터 이 강박이 심해졌고 그래서 특정 신체 부위를 째고 25년 2월에 한 번 더 너무 심해져서 상담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통해서 너가 병원 의사 선생님인지 상담가분인지를 통해서 질타를 받아서 실망을 했다. 그리고 어...

이종석 : 실망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표한결 : 두려웠다. 그래 어쨌든 질타를 받았다.

이종석 : 네.

표한결 :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게는 상시 가동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어떤 사진을 찍을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찍은 적은 있다. 오케이.

김여진 : 혹시 특정 신체 부위라는 게 내가 지금 추측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너가 명확하게 찍은 특정 신체 부위가 어디야? 여자애들?

이종석 : 치마 속, 가슴, 엉덩이, 배, 허벅지.

김여진 : 잠깐만 목사님 얘기 좀.

표한결 : 저랑요?

김여진 : 아니.

표한결 : 네. 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도촬에 대한 얘기는 다 들은 것 같고,

김여진 : 네.

표한결 : 종석아 그러면 너는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도촬에 관해서의 모든 일을 지금 시인을 한 거잖아.

이종석 : 네.

표한결 : 그렇지? 이 일을 너는 청년반 모두에게 사과하고 아까 이제 여진 누나한테 들었는데 각서를 써서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혹시 내가 집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너의 컴퓨터나 아니면 백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지 혹시 확인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이종석 : 저희 집이라는 게 제 본가 말씀이십니까?

김여진 : 너 본가든 자취방이든, 둘 다든.

이종석 :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표한결 : 아니.

김여진 : 잠깐만요, 목사님. 저랑 단둘이 얘기 좀 하실 수 있어요?

표한결 : 어, 네, 네. 잠깐만 쉬고 있어.

(28:31~30:47까지 대화 없음)

표한결 :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이제 그... 혹시 뭐 또 질문하실 게 혹시 있을까요?
없으시고. 음... 혹시 이제 인플루언서나 주변 사람들을 이제 불특정 다수로 이제
SNS 캡처한다고 했었잖아.

이종석 : 네.

표한결 : 그것도 이제 5월부터야? 우리 교회 사람들.

이종석 : 인플, SNS 캡처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한결 : 아니, 아니. 그 일을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SNS, 인플루언서나 뭐 다른 사람들은
일단 말고 지금 궁금한 거는 24년 5월부터 SNS 캡처도 같이했던 거야?

이종석 : 아닙니다.

표한결 : 아니면 교회 인원은 그 이전부터야?

이종석 : 전 제가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부터,

표한결 : 아니, 아니. 교회, 교회, 우리 교회 여청년들 **

이종석 : 그래서 교회 왔을 때부터였습니다.

표한결 : 아, 교회 출석이 언제였지? 20,

이종석 : 22년 11월입니다.

표한결 : 그리고 이것도 SNS를 하는 모두인 거지?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럼 인스타, 혹시 페이스북 이런 것도 해? 아니면 인스타만 한정이야, 아니면 카카오톡, 인스타 두 개야?

이종석 : 카카오톡, 인스타, 페이스북 다 포함입니다.

김여진 : 근데 페이스북 교회 여청년들 중에서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냥 너가 일방적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팔로우 맺은 애들만 보는 거야?

이종석 : 누나 저랑 팔로우 페이스북 되어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은 안 들어간 지 2년 넘었는데,

표한결 : 아, 뭐 과거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

김여진 : 아,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표한결 : 오케이, 오케이.

김여진 : 오케이.

표한결 : 어, 그렇구나. 그리고 어... 그러면 최근에는 이 경과 과정이 그냥 계속 유지됐던 거야, 아니면 최근에는 더 심해졌어? 2024년 12월에 비했을 때.

이종석 : 24년 12월에 비해서 말씀이십니까?

표한결 : 어.

이종석 : 심해졌다가 중간에 한 번 또 희망 고문을 할 만큼 나아졌다가, 특히 24년 5월에서 6월에 희망 고문을 할 만큼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드디어 나도 이 충동을 제어할 수 있겠구나.'라고 방심한 순간 정말 믿을 수 없게 그 충동이 다시 올라갔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한결 :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들은 건 다 들은 것 같고 어쨌든 종석이가 사과를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 내용

을 사실 우리 전체 인원이 모르잖아. 그렇지?

이종석 : 네.

표한결 : 오늘 종석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종석 : 네.

표한결 :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우리 청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청년들이 사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대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모든 인연을 끊는다든지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너를 더 이상 보호해 주거나 너를 우리의 어떤 일원의 관계로 여겨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알고 있어 주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종석이가 우리 연락을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이종석 : 네.

표한결 : 혹시 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 있으신가요?

김여진 :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표한결 : 아, 네.

김여진 : 너 스스로 이거가 범죄 행위라는 거를 인지는 해? 지금 말고 예전에 너가 한참 그 행위를 나에게 들키기 전까지 스스로 범죄 행위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이종석 :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동은 멈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저에게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역시 사실이고,

김여진 : 근데 종석아 있잖아, 이거 도촬 건을 어찌 됐든 내가 몰랐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대화를 할 때, 2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대화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SNS 한정에서 대화를 하긴 했지만 (한숨) 아무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말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표한결 : 혹시 또,

김여진 :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

표한결 : 뭐 우태나 준영 청년이나 더 이야기할 얘기 있으실까요?

김시은 : 앞으로의 계획.

표한결 : 종석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종석 : 어떤... 교회에서 말씀이십니까?

표한결 : 뭐 그냥 너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생각했을 때.

이종석 :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김여진 : 마지막으로 여행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

김시은 : 자살 생각하는 거야?

이종석 : 자살 생각이라는 거는 저는 이미 11년 동안 자살에 대해서 매일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더 심각하게 악화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제 삶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냥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께 행복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번 여행을 계획했고,

김시은 :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종석 : 여행 갔다 와서까지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김여진 : 그거는 좀 더 판단을 해볼게. 어찌 됐든 이 사안이 (한숨) 너가 성인이긴 하지만...

이종석 : 이미 비행기 예약을 해버려서.

김여진 : 아니 뭐 가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김시은 : 근데 너가 포커스를 약간 잘못 잡고 있는 게 우리가 너 자살하라고 이렇게까지 추궁하는 거 아니고. 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종석 : 저는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저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한결 : 종석이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아셔?

이종석 : 제가 입원을, 입원 치료를 네 번가량 받았고 자살 시도도 수도 없이 많이,
 표한결 : 입원이면 정신과 입원인가?
 이종석 : 네, 폐쇄병동 말,
 김시은 : 아, 진짜?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 진단명이 뭔지 말해줄래?
 이종석 : 저 오늘 가방을 보다 보니까,
 표한결 : 아니, 진단명만 알려줘.
 이종석 : 성적인 쪽으로는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표한결 : 이거 다른 거는?
 이종석 :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표한결 : 일단 말해 주면 돼, 거기 내용을.
 김시은 : 기분 저하증?
 최우태 : 응. 종석이 기분 저하증이네.
 표한결 : 기분 저하증. 기분 저하증에 대해서 부모님 아시고?
 이종석 : 제가 진단을, 제가 치료를 오래 받다 보니까 10년 전에 받았던 진단과 지금 진단
 이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분 저하증은, 하,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 봤는
 데.
 김시은 : 하여튼 이게 24년도 진단이고.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표한결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도 그게, 부모님이 정신과 입원 4번을 알고 너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대신 이런 모든 촬영이나 이걸 모른다는 거지?
 이종석 : 그렇습니다.

표한결 : 오케이.

김시은 : 그 자살 시도한 것도 아신다는 거잖아.

이종석 : 제가 자살 시도했던 거를 그날...

김시은 : 보셨어?

이종석 : 2018년에 약 먹고 자살 시도하려 했던 것도 알고 2014년 무렵에 그때 진짜 SNS에 자살하겠다고 올려서 그날 모든 서초구 고등학생들이 제가 자살하려 했던 걸 압니다. 부모님 **

김여진 : 혹시 자살, 그럼 고위험 증후군이잖아, 그 당시에.

이종석 : 네.

김여진 : 그거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거나 혹은 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했어?

이종석 : 제가 2015년에 세 차례 입원한 것은 제가 자살 시도를 학교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표한결 : 그래서 입원한 거야?

이종석 : 네.

표한결 : 아, 오케이. 그럼 입원이 네 번이라고 했는데,

이종석 : 네 번째는 그때 그 최보람이라는 사람 죽이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표한결 : 음, 그것도 알고 있어? 부모님이 그 스토리를?

이종석 : 부모님이 그때 와서 김진섭 목사님께 싹싹 비셨고 그때 제해종 총장님이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해 주셨습니다.

표한결 : 오케이.

종석 씨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제 듣다 보니까 권태하 집사님이랑 어쨌든 이 일이 처음 알게 된 사실인 거잖아.

이종석 : 네.

표한결 : 근데 이제 너가 바닥에서 핸드폰을 줍는 강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그냥 핑계지?

이종석 :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강박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핑계가 맞습니다.

표한결 : 음, 오케이. 저는 이제 다,

김여진 : 저 한 가지만 더,

표한결 : 아, 네. 더 물어보세요.

김여진 : 휴대폰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강박은 그냥 강박 증상인 거야, 아니면 사진을 찍어야, 사진, 영상을 찍어야 돼서 쥐고 있어야 된다는 강박인 거야? 너가 강박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강박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냥 그게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종석 :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촬영을 하지 않을 때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고, 그리고 데이터 호딩 항목에 있지만 항상 분실에 대한, 그 제가 2023년에 핸드폰을 한 번 버스에 놓고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축구 하다가 손을 다쳤었는데 그 이후로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함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표한결 : 그러면 이 데이터가 걸릴까 봐 두려운 거야, 아니면 그냥 핸드폰 존재 자체가 너의 일부가 돼서 손에 없으면 두려운 거야?

이종석 : 데이터가 걸릴까 봐보다는 잃을까 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박이 시작되었을 때는 도촬 시작하기 전이었고,

표한결 :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김여진 : 종석아 혹시 24년 5월부터 휴대폰 같은 거였나? 혹시 휴대폰을 여러 개 썼다거나.

이종석 : 저희 집이 그럴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여진 : 아니, 투 폰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휴대폰 바꾼 적 있는지.

이종석 : 없습니다. 저희 집이 그 정도로 부자는 아닙니다.

김여진 : 그럼 어찌 됐든 24년 5월부터 영상을 촬영했던 건 지금 쓰고 있는 그 기종,
이종석 : 에서만.
김여진 : 하나만?
이종석 :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김여진 : S24?
이종석 : 울트라입니다.
김여진 : 그거를 휴대폰에만 갖고 있어, 아니면 백업해놨어?
이종석 : 솔직하게 말하면 백업을 한 적 있었는데 제가 25년 2월을 말씀드렸던 게 25년 2월
에 죄책감을 너무 느껴서 그 백업해 놓은 걸 그냥 다 지웠습니다.
최우태 : 그럼 종석아 2월 이후는 지금 있니?
이종석 : 아니요. 그것도 다 지웠습니다. 제가 25년 6월을 말씀드렸습니다. 25년 6월을 말씀
드린 이유는 그때도 다시 죄책감을 느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25
년 6월 이후에는 그런 그것을 백업하지 않았습니다.
표한결 : 그럼 6월부터 또 최근까지 있었던 거는 뭐 어제가 됐든 뭐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결심했을 때 지운 거야?
이종석 : 25년 6월 말씀이십니까?
표한결 : 6월부터 최근까지.
이종석 : 25년 6월부터 최근까지요?
표한결 : 응.
김시은 : 지금 8월이잖아.
표한결 : 지금 8월이잖아.
이종석 : 아~

표한결 : 그러니까 가장,

이종석 : 왜 지웠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지운 건 맞는데 왜 지웠지?

김여진 : 아, 왜 지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이후로, 너가 2025년 6월에 한 번 지웠다고 했잖아.

이종석 : 네, 다시 지웠습니다.

김여진 : 그 이후로 찍은 것도 지웠냐는 거지.

이종석 : 네, 지웠습니다.

김여진 : 지웠어?

이종석 : 네.

표한결 : 지운 건 언제 지웠어?

이종석 : 7월에 지웠습니다.

표한결 : 저번 주?

이종석 : 아니요. 7월 초였습시다.

표한결 : 권태하 집사님한테 걸렸을 때?

이종석 : 네.

표한결 : 두려워서?

이종석 : 두렵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는 어쨌든 제가 이 기회를 살려서 그 층동에서 탈출하고,

표한결 : 오케이.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여기까지 하시죠.

김여진 : 네.

표한결 : 혹시 뭐 종석아 그럼 일단 오늘은 집으로 이제 가도 될 것 같고 우리끼리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우리의 연락을 기다려 주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

김시은 : 종석아 그래도 자살은 아니야.

김여진 : 자살은 방법이 아닌 거 알지, 너도?

김시은 : 다 포기했잖아, 애가 지금.

이종석 : 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김여진 : 종석아 나는 어찌 됐든 내가 뭐 도촬에 대해서는 오늘 알았지만, 아니, 들어봐. 도촬에 대해서 오늘 알았지만 내가 SNS 건 때문에 너랑 얘기하면서 너에게 여러 번 대화를 하고 너에게 기회를 줬던 이유는 너가 진짜로 너의 인생과 스스로를 직면하고 너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기회를 줬던 거야.

이종석 : 저는 그 기회를 다 걷어챘어요.

김여진 : 너가 뭐 자포자기한 심정이 돼서 죽겠다고 결심을 하니 마니 그거는 그냥 너가 그냥 괴로운 현실을 너 스스로 버티기 힘들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난 너가 자살을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살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남을 해치는 일이든 자살을 하는 일이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종석 : 죄송합니다.

김여진 : 죄송할 게 아니고 자살은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아무튼 된 것 같아. 목사님 말씀처럼 뭐 더... (한숨)

어떻게 그럼 마무리...

너가 계속 이렇게 자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뭐야, 자살 충동 기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

이종석 : 저 하나만 더 사실대로 털어놔도 될까요?

표한결 : 그래.

이종석 : 이미 저는, 아니, 아니. 저는 세 가지를 더 털어놓고 싶습니다.

표한결 : 응. 그래. 얘기해 보자.

이종석 : 첫 번째는 저는 생리에 대한 패티시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 여자 화장실에 두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표한결 : 그래서? 아, 알 것 같아.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종석 : 두 번째는...

표한결 : 신체적인 접촉 없었던 거지?

이종석 :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표한결 : 오케이. 두 번째로 넘어가자.

이종석 : 두 번째는... 잠시만요. 두 번째는...

이종석 : 그래서 여자들 가방을 다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표한결 : 언제?

이종석 : 항상이요.

표한결 : 교회 여자들?

이종석 : 네.

김여진 : 사람들 있을 텐데 언제, 어떻게 뒤졌는데?

이종석 : 다들 밥 먹으러 가지지 않습니까?

표한결 : 그래서 혹시 밥을 안 먹거나 활동할 때 가끔씩 떨어져 있었구나?

이종석 : 근데 밥을 안 먹는 건 어차피 어떻게 해도 안 먹었을 겁니다.

표한결 : 아니, 그건 알았고,

이종석 : 네.

표한결 : 그랬구나.

김여진 : 가방 뒤져서 뭘 했는데? 그냥 내용물만 확인했어, 아니면 뭘 훑쳐갔어?

이종석 : 훑친 적은 없었죠. 그럼 제가 뭔가를 훑었다면 당연히 들켰겠죠.

표한결 : 그러면 가방에 생리대가 있는 걸 확인하면 새벽에 화장실에 출입했어?

이종석 : 그렇다기엔 화장실은 두 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표한결 : 오케이.

이종석 :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던 건 24년 11월이었고.

표한결 : 출입은?

이종석 : 25년 4월에 한 번, 25년 6월에 한 번.

표한결 : 오케이. 세 번째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종석 : 네. 제가 아까 백업했는데 그거 다 지웠다고 했잖아요.

표한결 : 6월? 아니면,

이종석 : 2월에.

표한결 : 2월?

이종석 : 예, 25년 2월.

표한결 : 응.

이종석 : 저도 몰랐는데...

표한결 : 다 못 지웠구나?

이종석 : 아니요. 지운 건 확실했는데, 지운 건 확실했는데 제가 누나랑 싸우고 나서 그때는 어쨌든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났던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

표한결 : 6월에?

이종석 : 아, 7월이구나.

표한결 : 그렇지, 어.

이종석 : 네, 7월에.

표한결 : 여진 누나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종석 : 네. 그래서 궁금해서,

표한결 : 복구 한 적 있어?

이종석 :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되더라고요. 안 된 것도 있었는데 되더라고요.

표한결 : 응, 오케이.

이종석 : 저는 제가 핸드폰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했던 거는 도둑 맞지 않으려고, 저는 물론,

표한결 : 아니, 아니. 그런 감정적인 건 얘기 안 해도 될 거 같아.

이종석 : 아니, 아니. 그 물론 저는 지금 하나도 잘한 건 없지만, 아니, 하나도 잘한 게 없는 걸 넘어서 역대 최악의 잘못을 했지만 제가 했던 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여진 : 의도가 없었다는 거는 외부에 유포가 됐든 업로드를 했는데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유포가 됐다는 거야, 아니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종석 : 아, 유포한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 손으로 올린 적 없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김여진 : 근데 너 손으로 올린 적은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올라갔, 뭐 이게 공유가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종석 : 아니요. 그,

최우태 : 그냥 공유하진 않았고 공유할 생각은 없다.

김여진 : 공유하지는 않았고 그냥 복구는 한 적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최우태 : 근데 종석아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종석아,

이종석 : 그 잠시만요. 그... 아, 그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 하면... 잠시만요. 잠시, 죄송
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아니, 형 먼저 말씀하세요.

최우태 : 아니야, 얘기해 봐.

이종석 : 제가 너무 생각이 안 나서.

김여진 : 아니, 그냥 그 복구 하고 나서 다시 봤어? 다시 본 거야? 보고 뭐 자위를 했어?

이종석 : 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화내선 안 됐지만 그냥, 그냥이 아니라 그
때는, 네.

표한결 : 아, 네라고 했으니까 됐고 이제 그 복구를 한 것까지 지금 지운 거야?

이종석 : 그 핸드폰에서는 지워진 게 맞고요. 제가 복구를 한 컴퓨터를 잘 안 열어봐가지고.

표한결 :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이종석 : 컴퓨터,

김여진 : 너 자취방에 있는 노트북, 아니면 본가 컴퓨터?

이종석 : 본가에 있는 노트북이요.

표한결 : 오케이.

김여진 : 근데 나한테 어제 사과,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사진과 영상 지웠다고
했잖아. 그럼 거짓말한 거니? 아무튼 알겠어. 알았어. 아니, 뭐 거짓말한 걸로
추궁하는 건 아니고 일단 (한숨) 알았어. 너가 추가 고백한 것도 다 알았어.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종석 : 그리고 잠시만요. 하나만 더 고백할게요.

표한결 : 또 있어?

이종석 : 아까 민서 얘기하셨잖아요.

표한결 : 응.

이종석 : 전 진짜 그날에 민서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여진 : 알았어.

표한결 : 아, 오케이.

이종석 :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화장실 쓰레기통에 민서 생리대가 있었어요.

표한결 : 아, 그건 알았어. 그건 **

이종석 : 저는 그리, 그,

김여진 : 그게 민서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대?

이종석 : 냄새가 났어요.

표한결 : 아, 화장실 출입한 거 그거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종석 : 아니, 화장실을 출입한 게 아니라 그 방에 화장실이 그거밖에 없었는데,

표한결 : 아, 오케이, 오케이.

이종석 : 예.

표한결 : 오케이, 오케이.

이종석 : 그 서머 그 방은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의 구분이 없었으니까.

표한결 : 아,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이종석 : 그거는, 그걸 본 건 맞는데 전 그날에 그냥 잠이 안 왔을 뿐이고 민서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표한결 : 아, 오케이.

김여진 : 알았어, 알았어.

표한결 : 오케이. 알았어.

김여진 : 이해했어.

이종석 : 자리 이제 비켜 드릴까요?

표한결 : 응, 알겠어.

- 끝 -



진속기사무소

JIN STENOGRAPHY OFFICE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811호 (문정동, 문정해리ום써밋타워)
TEL : 02) 407-8110 / E-mail : jinsokki@naver.com / WEB : www.진속기.com